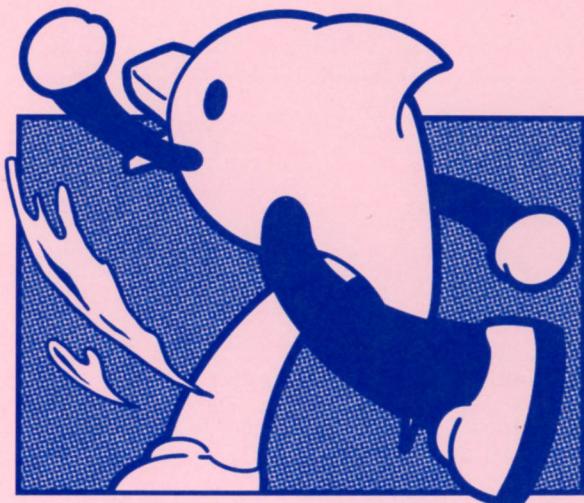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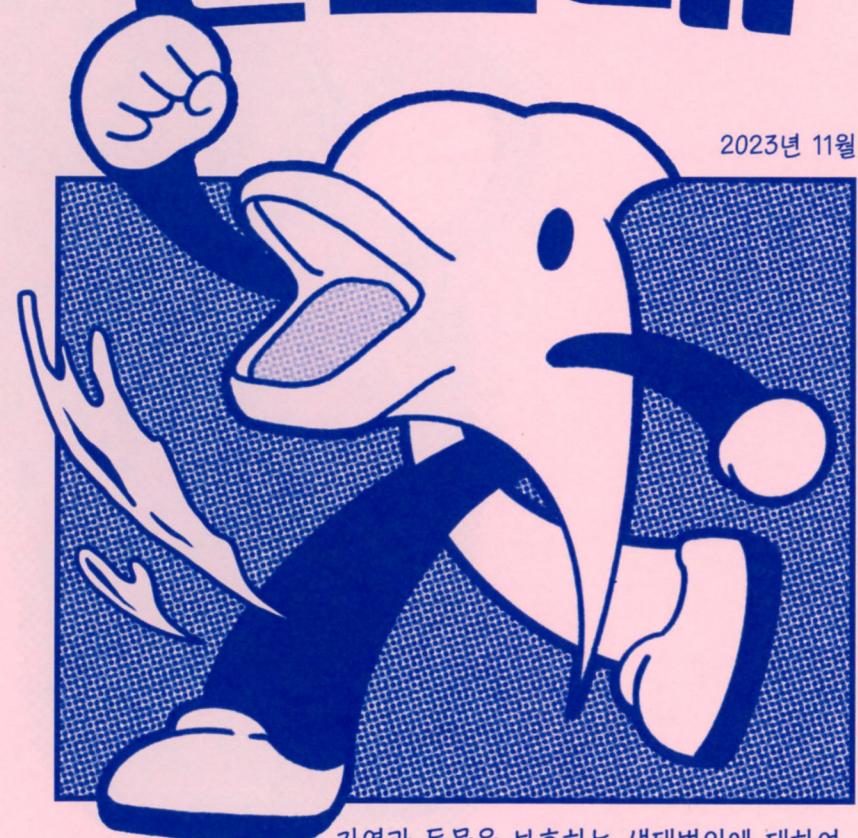
# 읽어줘서 고마워



행운을 빌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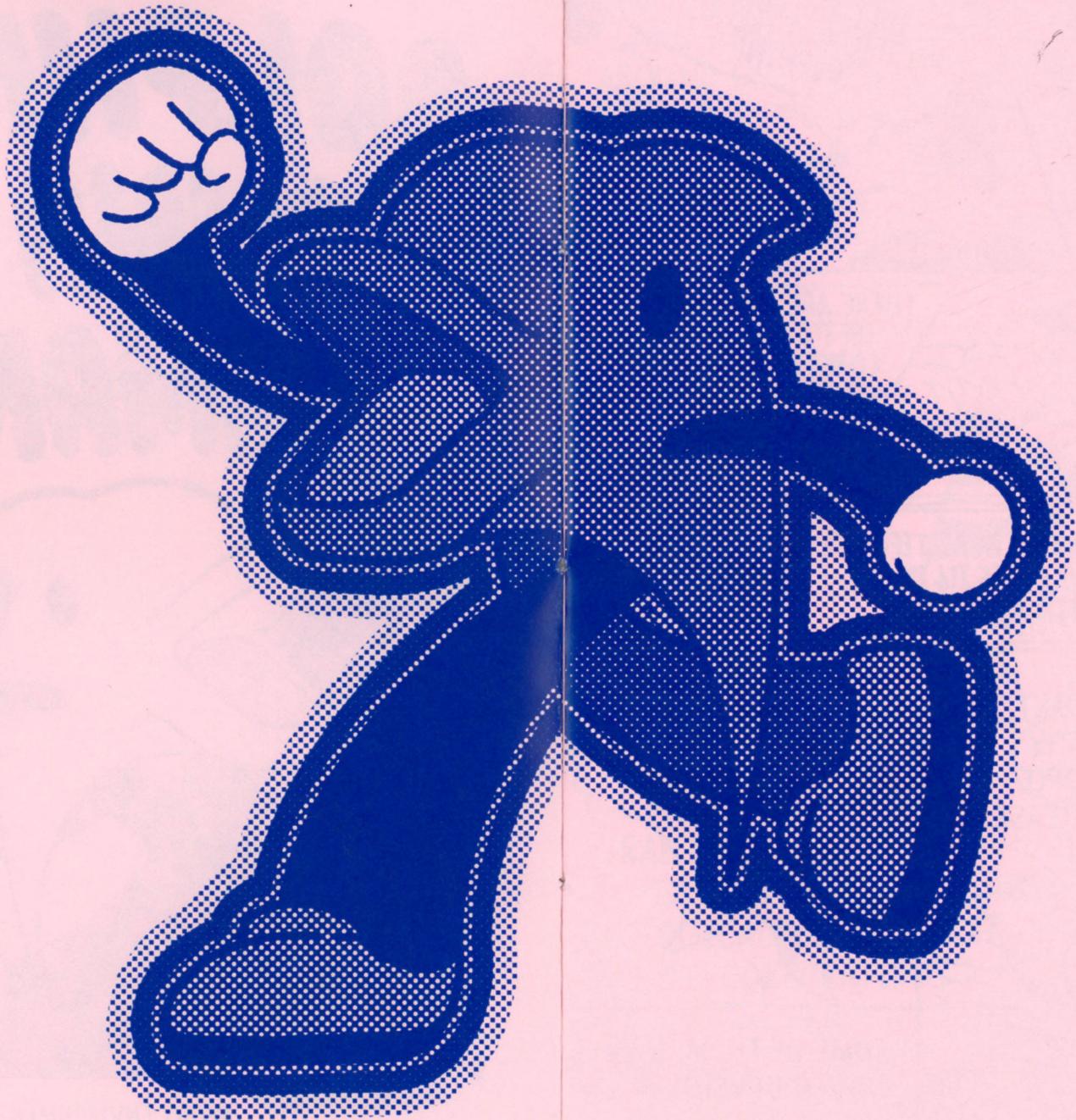


# 인간이 되고 싶은 돌고래



2023년 11월

자연과 동물을 보호하는 생태법인에 대하여..



# 인간이 되고 싶은 돌고래

안녕 반가워! 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야

하루에도 수십번 우리를  
보기위해 배가 자꾸 우리  
주위를 서성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우리는 섬에 100여마리  
정도밖에 남지않은  
멸종위기종이야

나는 제주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살고있어!

우리는 사람들의 생활구역 근처인  
제주연안가에 살아서  
이들이 버린 쓰레기나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쉬웠지

내 친구들중엔 심지어  
꼬리가 절단된 친구들도  
많아

몇몇 친구들은 암에 걸린  
친구들까지 있다니까!

가끔은 돌고래쇼에 동원하려고  
우리를 납치하기도 해

이게 내가  
법인격을 가지려는  
이유야!

이걸 다른말로는  
생태법인이라고해!  
(Environmental person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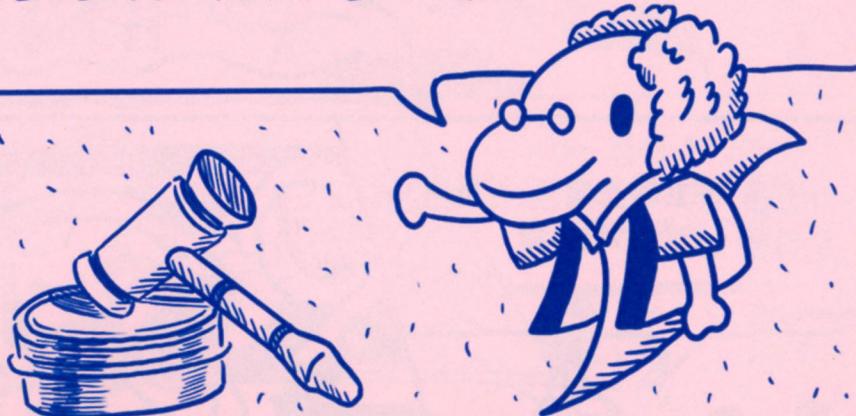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 처럼 생태가치가 필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기업

자연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 개인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대리인이나 후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러한 법안이 생기면 나와 내 친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훨씬 쉬워진다구~

나와 나의  
친구들을  
응원해주지  
않을래?

끝

## 생태법인이란 무엇일까?

생태법인은 비인간 주체들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법적인 보호를 인간에 국한하지 않고 자연까지 확장하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법치주의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법치주의에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을 법 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를 통해 사회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의 대상과 내용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72년 크리스토퍼 D. 스톤 (Christopher D. Stone)은 숲과 강이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자연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Should Trees Have Standing?*, 1972). 또한 그는 관련된 법 등을 잘 정립한다면 자연의 일부분도 분명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법인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관계없이 항상 보호해야 할 고유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자연보호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에콰도르&볼리비아

#사례\_1

2008년 에콰도르는 헌법을 개정하여 환경 보호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이를 행한 국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볼리비아는 2010년에 이 뒤를 이었습니다. 에콰도르 헌법 제71조는 자연이 생존하고 기능하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주기, 구조, 기능 및 과정을 유지, 보전, 간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분리된 독립적인 실체로서 보면, 자연이 갖는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법률에서도 비슷한 보호의 뼈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자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일명 '지구 어머니의 권리'('Law of Mother Earth's Right) 법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줄이고 대신 숲, 강, 빙하와 같은 개별 구성 요소가 아닌 자연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 돌고래가 위험에 처했어요

2017년, 뉴질랜드는 북섬 중심을 흐르는 중요한 천연 자원인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파격적인 결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강이 법적 주체의 지위를 부여받은 사례로,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재판을 통해 채택되었습니다. 마오리 부족은 유럽 정착자들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 강과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마오리 문화에서 조상의 영혼인 '투푸나'는 여전히 자연계에 존재하며, 지역 사회는 상속 받은 풍경 및 조상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신념에 따르면 인간과 물은 서로 뒤얽혀 있는데, 이는 '나는 강이다, 강은 나다' 같은 속담에서도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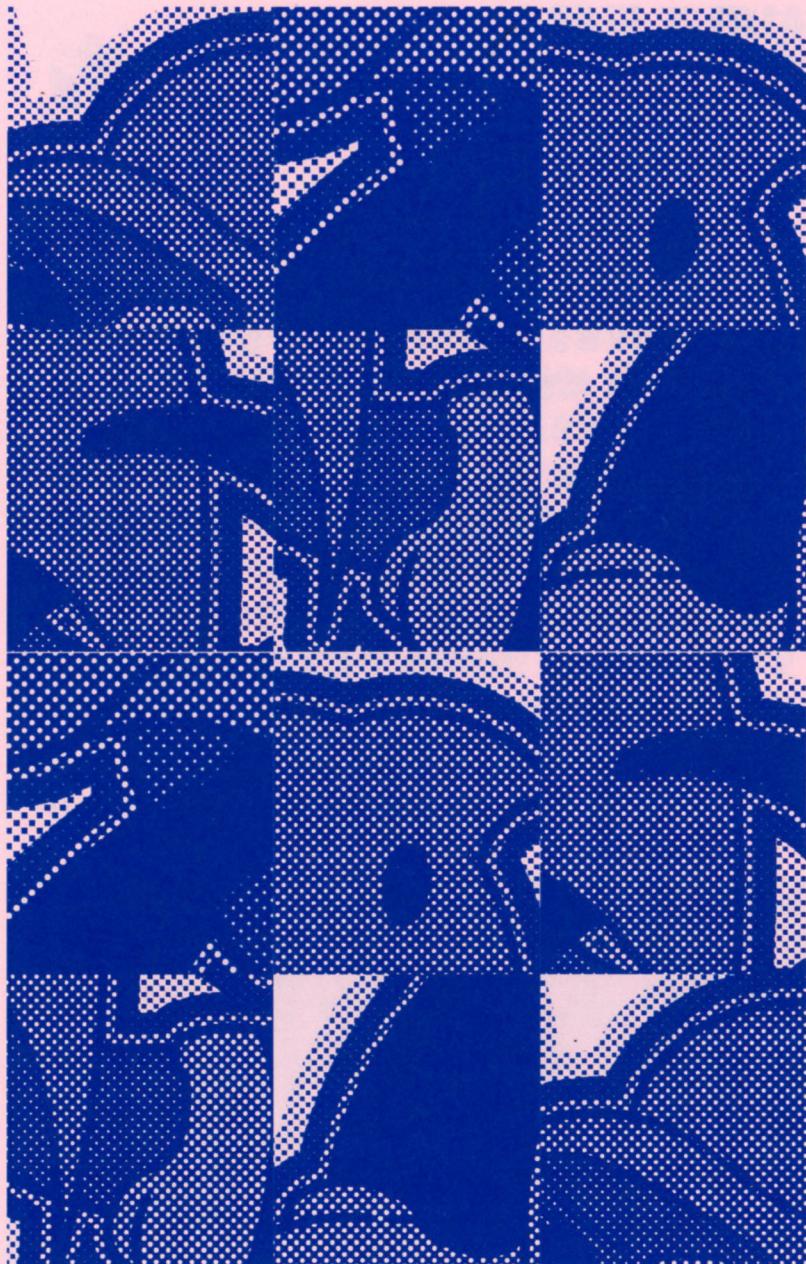
강이 법적 주체로 인정받음으로써, 강에 해를 입히는 것은 부족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동등한 법적인 위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강에 대한 어떠한 모독이나 위협 (오염이나 허가되지 않은 활동 등)이 발생할 시 강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심지어 스스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에 약 100-120 마리정도 서식하고 있으며 높은 사회성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큰돌고래와 동종으로 여겼습니다. 둘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돌고래가 큰 몸과 약간 짧고 다부진 부리를 가졌다면, 남방큰돌고래는 날씬한 몸과 비교적 긴 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방큰돌고래는 큰돌고래와는 달리 배에 반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빛깔도 큰돌고래와 비교해서는 남방큰돌고래가 약간 더 밝은 빛깔입니다. 실제로 DNA 염기서열을 연구한 결과 둘은 유전자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90년부터 한국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은 총 30여마리로, 모 관광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그물에 걸린 돌고래들을 방생하지 않고 마리당 천만원 정도에 팔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돌고래 방사운동을 통해 서울동물원의 남방큰돌고래 대포, 금등이, 제돌이와 제주 퍼시픽랜드의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가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남방큰돌고래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단체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제주도 앞바다에 한 돌고래의 턱이 기형적으로 변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전문가들은 돌고래가 악성종양, 즉 암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제주 앞바다에 사는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연안의 환경 상태와 관련이 깊은데 이러한 돌고래의 발견은 제주 바다의 상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걸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제주시민사회 단체는 해양 생물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안된다며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대정해상풍력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 핫핑크 돌핀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알려가는 해양환경단체입니다. 2011년 한국에서 최초로 수족관 돌고래 해방운동을 시작했으며, 2013년 제돌이 야생방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여덟 명의 수족관 남방큰돌고래들을 고향 제주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방류된 돌고래들이 잘 지내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보기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제주돌핀센터를 세우고, 멸종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환경운동가 황현진과 평화활동가 조약골을 공동대표로 하여 2011년 설립되었으며,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돌고래 등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 보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국회의원, 핫핑크돌핀스, 기자 등이 모인 생태법인 관련 입법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생태법인의 입법은 분명히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 위에 군림해 오던 인간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권리부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이 비인간 존재들의 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 참고문헌

Evans, K. (2020). The New Zealand river that became a legal person. [online] www.bbc.com. Available at: <https://www.bbc.com/travel/article/20200319-the-new-zealand-river-that-became-a-legal-person>.

WWF KOREA (2021). 남방큰돌고래 소case 남방큰돌고래와의 공존을 위한 이해. (n.d.). Available at: [https://www.wwfkorea.or.kr/data/file/korean\\_report/3554271915\\_xwV2iCIE\\_0296c09dbd71064a4804410722c06ba95679f13b.pdf](https://www.wwfkorea.or.kr/data/file/korean_report/3554271915_xwV2iCIE_0296c09dbd71064a4804410722c06ba95679f13b.pdf) [Accessed 9 Nov.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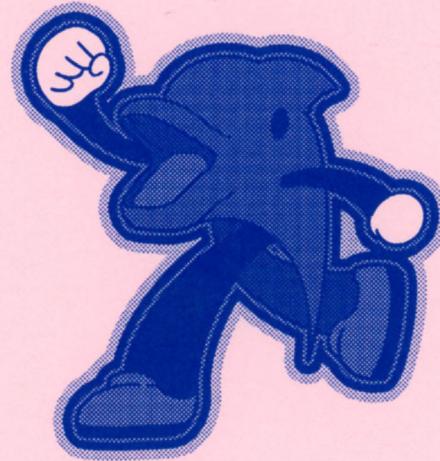
NICKELED AND DIMED. (2022). TRACING THE HISTORY OF ENVIRONMENTAL PERSONHOOD. [online] Available at: <https://nickledanddimed.com/2022/12/02/tracing-the-history-of-environmental-personhood/>.

Traub, A. (2021). Christopher Stone, Who Proposed Legal Rights for Trees, Dies at 83. The New York Times. [online] 28 May. Available at: <https://www.nytimes.com/2021/05/28/us/christopher-stone-dead.html>.

Wikipedia. (2023). Environmental personhood. [online]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Environmental\\_personhood#:~:text=Environmental](https://en.wikipedia.org/wiki/Environmental_personhood#:~:text=Environmental) [Accessed 9 Nov. 2023]

hani (2022). '생태법인'을 아시나요?…제주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논의 시동. [online]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61569.html](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1061569.html) [Accessed 9 Nov. 2023].

Jejusori (2022). 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가 비현실적? 세계 사례 주목하라. [online] 제주의소리. Available at: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7702> [Accessed 9 Nov. 2023].



1. 출판/디자인: 이유빈 현대예술대학 LCC 그래픽 미디어 디자인 2학년  
2. 날짜: 2023년 11월

3. 제주도에 있는 돌고래들 후원하기

후원 : 국민은행 067501-04-045234 핫핑크돌핀스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17번길 5-7  
전화 064-772-3366 팩스 0303-3442-3366  
이메일 HOTPINKDOLPHINS@GMAIL.COM

4. 핫핑크돌핀스 SNS

인스타그램: @HOTPINKDOLPINS  
유튜브: WWW.YOUTUBE.COM/USER/HOTPINKDOLPHINS/VIDEOS  
페이스북: WWW.FACEBOOK.COM/HOTPINKDOLPHINS/